

##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환경

이승철\*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Sung-Cheol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주요어 :** 노동환경, 외국인직접투자, 캄보디아, 민간 부문 모니터링,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

**Abstract :**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some strategic foundations for future Korean foreign investors in Cambodia by investigating trend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Rapid increase in labor costs, and investment incentives centering on high-tech industries in China and Vietnam has led to the relocat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into low wage countries since the early 2000. As a result, Cambodia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investment region in which enable to off-set existing locational and institutional advantages, so that it has implicated in 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 In addition,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operated two labor relations projects - *Better Factory Cambodia and Labor Dispute Resolution*

이 논문은 2013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2012년 노사발전재단의 지원 사업인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 사노무관리 성공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서울 캠퍼스(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Seoul campus, leesc@dongguk.edu)

*Project* - with ILO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investment firms. These projects could provide an insight into constructing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ment, and also imply institutional embeddedness in Cambodia.

**Key Words** : working condition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Cambodia, Better Factory Cambodia(BFC), 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

## 1. 서론

캄보디아는 1989년 탈공산화 정책을 시작으로 1993년 총선을 통해 입헌군주제 및 자본주의 체제 정부를 설립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생적 발전 기반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립정부가 구성된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는 2005년 미화 405달러에서 2013년 현재 미화 1,007달러로 급성장하였다(World Bank).

1980년대 후반 이후 캄보디아의 정치 및 경제적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의 성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나타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은 방어적 외생적 발전 전략과 공격적 외생적 발전 전략을 동시에 채택하여 지역의 자산과 특성에 적합한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수출 주도형 발전주의(export-led developmentalism)를 경제발전의 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수출지향형 노동집약적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지현철·이승철 2007).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과학기술 개발정책 기반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존 소규모 노동집약적 생산 중심에서 대규모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생산 중

심으로 전환하고 있다(이승철·김미성 2009). 이에 중국의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투자 대안 지역으로 베트남이 부상하였지만, 최근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업체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승철 2007; 이승철·오병두 2013). 그 결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급상승과 기존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부문의 새로운 투자 거점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지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Cuver, Plasmans, Soeng and Bulcke,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가 기존 중국과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캄보디아 노동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Warren and Robrertson 2011).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역 및 업종별 투자 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을 시기별 및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및 체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인센티브 및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ILO와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는 정부 설립 이후 1994년 8월 5일 도입된 외국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sup>1)</sup>과 캄보디아 개발협의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로 인해 활성화되었다. 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네 개의 시기—도입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1).

첫째, 도입기(1994~1998)는 외국인 투자법과 캄보디아 개발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다소 증가한 시기이다. 둘째, 정체기(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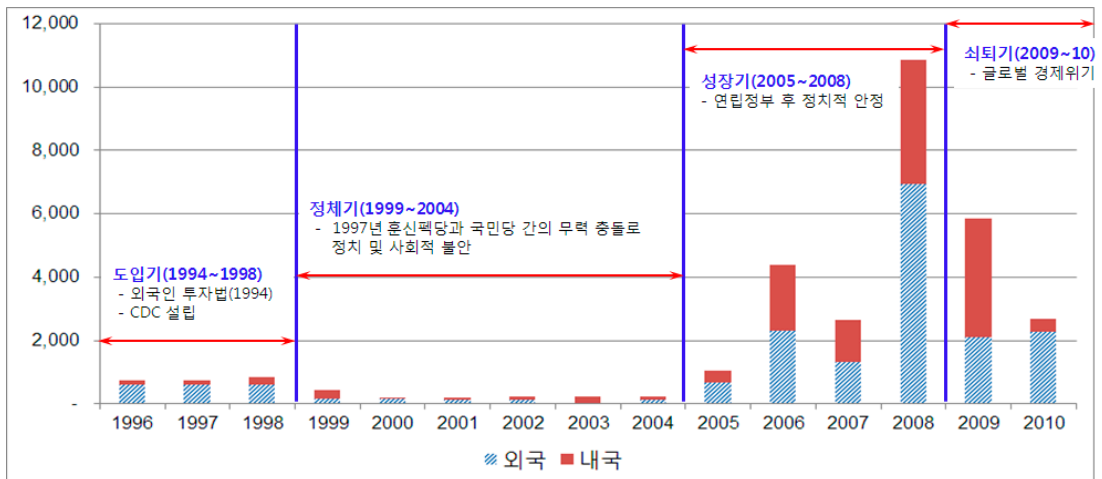


그림 1. 캄보디아 투자 동향, 1996~2010(단위: US\$ 백만)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주: CDC의 QIP 승인을 받은 투자 금액 기준임.

2004)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력 충돌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해 지자 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시기이다. 예를 들어, 1996년에 미화 6.2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가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미화 0.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성장기(2005~2008)는 2000년대 중반 연립정부 구성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이다<sup>2)</sup>. 그 결과 2005년에 외국인 투자는 6.8억 달러로 초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였으며, 2008년에는 69.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내국인에 의한 투자도 2005년 3.6억 달러에서 2008년 39.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쇠퇴기(2009~2010)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투자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2011년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캄보디아 경제는 본격적인 석유 생산, 높은 출산율과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20대 이하의 풍부한 젊은 노동력 등을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이승철·오병두 2013).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을 살펴 보면, 2005년 WTO 관련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대 캄보디아 투자국은 말레이시아가 1위, 중국이 2위, 대만이 3위, 미국이 4위, 한국이 5위를 점유하였지만, 2011년에는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말레이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미국이 5위로 변화하였다<sup>3)</sup>(그림 2). 이는 말레이시아가 1990년대 말까지는 투자 승인을 많이 받았으나, 캄보디아의 정치적 혼란과 금융 위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One Asia 정책의 일환으로 아무런 조건 없는 중국의 대규모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따라 중국의 투자가 크게 급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1). 2005년까지 베트남의 캄보디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1년에는 승인 금액 기준으로 7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1985년부터 논의된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협약이 2005년에 체결되면서 베트남의 투자가 점차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동향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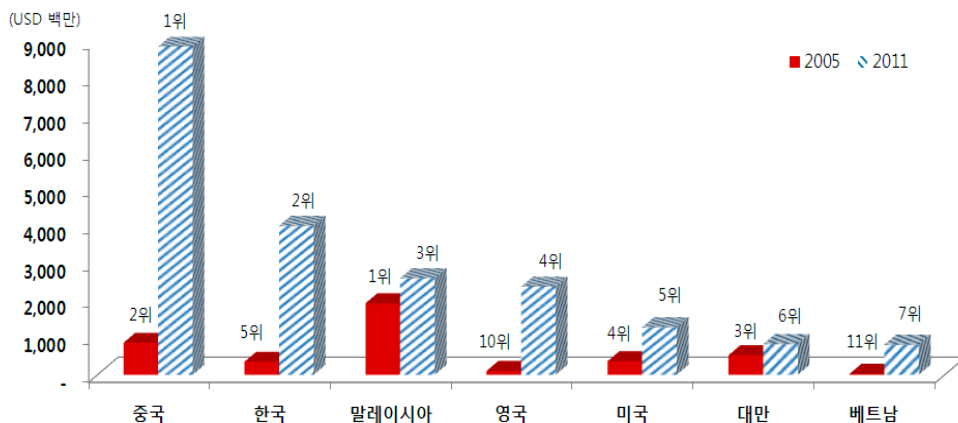


그림 2. 캄보디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2006년 이후에는 관광업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1).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41.0%인 한편 서비스업의 31.1%였지만, 2005년에서 2011년 제조업의 비중은 20.6%로 감소한 한편 관광업의 비중은 54%로 크게 증가하였다. 관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에너지와 섬유 및 의류 부문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Cuyvers, Soeng, and Bulcke, 2006). 캄보디아는 2002년 원전 시추 작업을 처음 시작하여 2005년 남부 해안에서 풍부한 매장량이 확인되면서 에너지 부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공업에서 에너지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2006년 이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섬유 및 의류산업은 기존의 중국, 베트남 등지에 주로 입지하였던 섬유 및 의류기업이 경제성문제로 캄보디아로 투자가 이전 확대되었다(Natsuda, Goto and Thoburn 2009; Hossain 2010). 그

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섬유 및 의복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표 2).

## 2)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거의 같은 시기적 유형—초기 성장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이 나타난다(그림 3). 첫째, 1992년 목재 가구 부문의 투자로 시작된 초기 성장기(1992~1997)에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1997년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 증가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5년까지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1997년에 48건의 봉제업 투자가 있었다. 둘째, 정체기(1998~2004)에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2003년 캄보디아의 WTO 가입 신청을 기점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는 성장기(2005~2008)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투자액이 미

표 1. 캄보디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농업	공업	서비스업	관광업	합계
1994-2005	344 (4.5)	3,147 (41.0)	1,800 (23.4)	2,386 (31.1)	7,677 (100.0)
2006	505	987	2,171	777	4,440
2007	371	338	653	1,294	2,656
2008	95	726	1,292	8,776	10,889
2009	590	958	410	3,901	5,859
2010	554	946	1,059	132	2,691
2011(1-9)	284	2,695	192	2,503	5,674
2006-2011(9)	2,399 (7.7)	6,650 (20.6)	5,777 (17.9)	17,383 (54.0)	32,209 (100.0)
누적(1994-2011.9)	2,743 (6.9)	9,797 (24.6)	7,577 (19.0)	19,769 (49.6)	39,886 (100.0)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주: CIB 승인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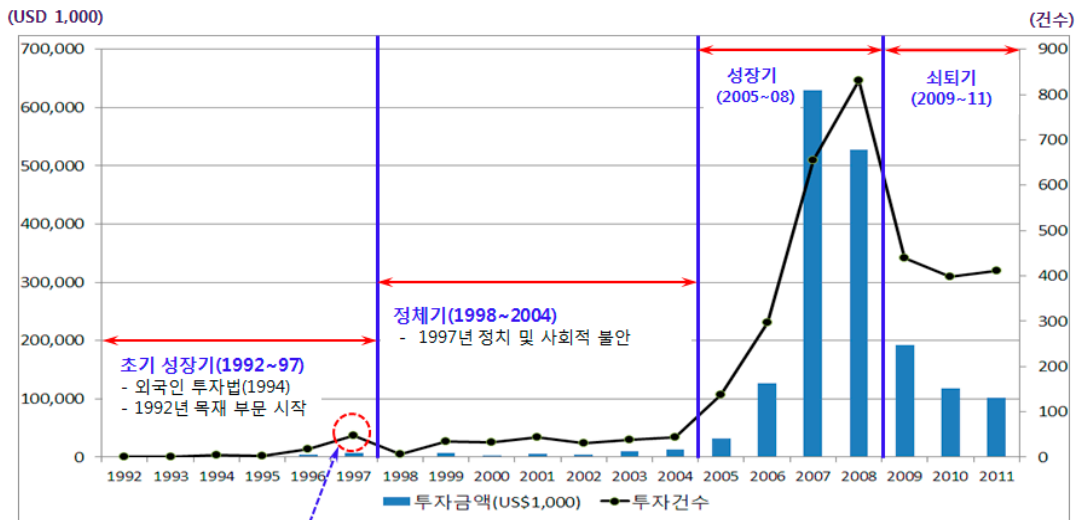
표 2. 캄보디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09
에너지	596	11	494	665	589	-
식품 가공	4	21	4	12	40	7
섬유의복	149	205	147	93	134	280
기계/금속/전기	4	4	12	2	8	6
광업	3	31	5	15	92	31
정유	-	-	-	3	-	-
플라스틱	-	5	6	2	6	-
신발	31	26	12	28	48	17
목재 가공	-	7	-	16	2	-
기타	200	27	46	122	27	2,354
합계	987	337	726	958	946	2,695

자료: Cambodia Investment Board(CIB)

주: CIB 승인액 기준



한국과 캄보디아 수교  
- 투자건수 48건, 봉제업 부문 투자 증가

그림 3.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동향, 1992~2011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각 년도

주: 투자 금액 및 건수는 순수 투자(net investment) 기준임.

화 0.1억 달러에서 2007년 미화 6.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정체기(2009~2011)에 캄보

디아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sup>4)</sup> 지속적으로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다. 캄보디아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10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44.6%를 차지하여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한국의 캄보디아 업종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1994년 외국인 투자법과 CDC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목재가구 분야에 집중하였지만, 2004년 이후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3). 예를 들어,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7년 30.7%와 27%에서 2011년에는 52.1%와 3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대부분 섬유 의복과 음식료품 부문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석유화학, 전자통신, 기계장비 부문으로 투자가 다양해지고 있다.

### 3.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제도적 변화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는 1994년 외국인 투자법 발효 이후 투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투자법 개정 이후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투자법이 발효되면서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sup>5)</sup>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 되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는 총리 직속 기관인 캄보디아 개발협의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가 주관하고 있다. CDC는 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일괄적으로 승인 심의한다<sup>6)</sup>. 또한

표 3. 대 캄보디아 한국 제조업 업종별 투자 동향, 1992-2011

(단위: US\$ 1,000(천))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1
음식료품	- (-)	- (-)	- (-)	2,600 (1)	- (-)	9,514 (16)	18,845 (13)
섬유 의복	- (-)	258 (2)	337 (2)	1,098 (12)	113 (14)	8,367 (44)	11,490 (56)
신발가죽	- (-)	- (-)	- (-)	- (-)	370 (2)	2,150 (9)	1,629 (17)
목재가구	1,300 (1)	- (-)	- (-)	- (-)	- (-)	570 (8)	- (-)
종이인쇄	- (-)	- (-)	- (-)	- (-)	- (-)	125 (1)	- (-)
석유화학	- (-)	- (-)	- (-)	- (-)	- (-)	5,988 (12)	2,520 (20)
비금속광물	- (-)	- (-)	246 (2)	70 (2)	895 (3)	37 (2)	- (-)
1차금속	- (-)	- (-)	- (-)	- (-)	- (-)	- (-)	- (-)
금속가공	- (-)	- (-)	- (-)	- (-)	- (-)	- (-)	- (-)
전자통신	- (-)	- (-)	- (-)	- (-)	50 (2)	569 (3)	1,520 (10)
기계장비	- (-)	- (-)	- (-)	- (-)	- (-)	3,652 (3)	82 (4)
수송기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125 (1)
계	1,300 (1)	258 (2)	583 (4)	3,768 (15)	1,428 (21)	30,972 (98)	36,211 (1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각 년도

CDC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투자자를 대신하여 임시등록확인서 또는 조건부 투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기관으로의 허가취득을 대행하고, 산하 실무 기관인 캄보디아 투자청(Cambodia Investment Board: CIB)과 캄보디아복구개발청(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이 국내 투자와 공공 부문의 국제 지원 및 국제 투자 유치에 각각 담당하고 있다(CDC 2008).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 근거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캄보디아 정부가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핵심 전략이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이다. 사각 전략의 핵심 4대 전략은 1) 농업 분야 강화, 2) 인프라 복구 및 부흥, 3)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employment generation), 4)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CDC 2008). 전략적 국가개발계획 핵심 4대 전략 중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제 3전략인 민간 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이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제 3전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전략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되어 있다<sup>7)</sup>(이승철·오병두 2013).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QIP에 대한 투자 보장<sup>8)</sup>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QIP에 한해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법 제4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는 관세 및 소득세 감면, 감면 기간, 관세 면세 등으로 구분된다(CDC 2003). 첫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내국기업이나 외국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와 소득세 감면 형태로 제공된다. 둘째,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 기간(trigger period)+3년+추가 감면 기간(priority period)”으로 구성되며, 사업 개시 기간과 추가 감면 기간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최소

6년(초기 3년간 수익 발생이 없을 시)에서 최대 9년이다. 셋째, 관세 면세는 QIP 기업이 보세 지역에서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생산 설비 및 건축 자재를 수입할 때와 보세 지역 이외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설비, 건축 자재, 원자재, 중간재 등을 수입할 때 발생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를 설치하였다. 캄보디아 SEZs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2005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과 자유무역지역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성장환·장인석 2010: 191). 캄보디아 SEZs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총 22개 구역이 신청이 되어 있으며, 완공되었거나 부분 완공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은 총 3곳이 있다<sup>9)</sup>. CDC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하위령 제147호에 따라 SEZs를 담당할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이승철·오병두 2013). SEZs 입주업체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업무는 전부 SEZs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CDC를 통한 투자가 아니어도 SEZs 입주업체는 QIP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입지우위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 완료된 프놈펜 SEZs의 분양률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다. 성장환·장인석(2010)은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SEZs에 산업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고, 클러스터 구축 여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조율하지 못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 우리 공장이 프놈펜 SEZ에 입지하지 않은 이유는 프놈펜 SEZ는 규격화된 공장을 준공하여 분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



는 생산 공정 설비를 이곳의 규격화된 크기에 맞춰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SEZ의 공급이 저희 회사 수요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투자는 이미 QIP이기 때문에 굳이 SEZs에 입지를 하지 않더라도 SEZs에 입지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캄보한솔 이혜숙 법인장과의 인터뷰, 2012년 8월 14일)

#### 4.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1년 이후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과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절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효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로 ILO와 연계된 노사관계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에 편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섬유 및 의류 부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BFC는 국제노동규범(International labor standard)에 따라 캄보디아 봉제공장의 노동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는 공장의 노동 환

경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BFC 프로젝트는 미국과 캄보디아의 쌍무섬유협정에 기반하여 캄보디아 정부, 의류제조업협회(GMAC),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자문위원회(Project Advisory Committee)의 가이드에 의해 2001년에 시행되기 시작되었다(Rossi and Robertson 2011).

미국은 캄보디아와 3년 간(1999-2001년) 섬유 통상협정을 맺어 12개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한 쿼터를 확정하여 캄보디아가 ILO에서 제시하는 국제 노동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공장)에는 무역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한편,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 할 시에는 매년 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Adler 2007). 이는 200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제 기구 의존적인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제도적 착근성(institutional embeddedness)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쿼터 결정에 필요한 감사를 실시하기엔 캄보디아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였고, 영리 및 비영리 개별 모니터링 그룹 역시 역량이 부족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ILO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ILO에서도 처음으로 민간 부문 모니터링을 수용하게 되었다<sup>10)</sup>(ILO 2010).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로 미국과 캄보디아 간 섬유 쿼터가 종료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쿼터제가 종료되어도 업체가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ILO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전체 산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Hess 2013: 14-15).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Better Factory Cambodia”(BFC)로 프로젝트 명칭을 변경하고, ILO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위반과 개선 사항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1)</sup>. ILO 모니터링 결과는 우선 개별 공장 명을 밝히지 않고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2차 결과 보고서에 각 공장의 개선 여부를 재검사하여 규정

을 위반한 업체는 공장명을 밝히도록 단계를 구분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ossi and Robertson 2011).

ILO의 BFC 모니터링은 2001~2002년에 1차 평가가 시행되었으며, 1차 모니터링 이후 3년 간 미 준수 항목에 대한 추가 방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고, 2005년 2차 방문 모니터링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 8개월에 1회 방문 모니터링이 시행되어 2011년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방문 모니터링이 시행되었다. BFC 모니터링은 근로 조건에 대한 27개 그룹에서 40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차에 걸친 BFC 모니터링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01년 BFC 도입 이후 캄보디아 공장의 근로 조건에 대한 준수율이 1차 78.6%에서 5차

표 4. BFC 근로조건 항목별 준수율 변화 추이(2001~2010년)

(단위: %)

근로조건 항목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4차 방문	5차 방문
단체 협약	90.4	93.3	96.6	97.7	97.7
파업	97.5	99.9	99.9	99.8	98.7
근로자 대표	59.9	71.3	73.4	72.7	75.3
인사 관련 사무원	59.4	86.2	90.5	92.6	95.3
노동조합	93.5	98.1	98.5	99.4	99.5
노동분쟁	93.3	95.5	95.8	97.4	96.7
아동 노동	80.0	73.4	74.5	74.6	75.0
차별	96.7	96.7	97.1	96.6	96.1
강제 노동	99.6	100.0	100.0	100.0	100.0
임금 정보	61.3	73.6	77.5	78.1	78.8
임금 지불	76.9	80.5	84.0	86.1	89.6
고용 계약	82.9	83.3	86.8	88.6	92.4
처벌 및 관리 부정행위	85.6	90.2	91.0	91.5	91.3
내부 규율	89.6	95.6	97.1	98.1	98.6
보건	57.0	69.0	71.0	74.6	77.8
기계 안정성	83.8	87.3	89.5	91.4	92.9
기온, 통풍, 소음	76.7	78.2	78.7	76.6	78.8
복지 시설	76.7	83.7	85.6	86.7	87.4
작업장 운영	69.7	75.7	77.5	78.6	80.4
업무 안정성	54.4	72.6	76.5	79.3	82.0
화학	78.3	74.9	76.7	76.2	77.3
에너지 준비	86.3	91.5	92.0	93.8	93.0
초과 근무	58.8	66.2	70.9	72.3	76.2
정규노동시간 및 주말 휴무	75.6	86.0	88.7	89.2	89.8
사고 및 질병 보상	81.3	96.8	97.2	98.4	99.0
휴가 및 휴직	84.2	85.0	89.0	90.1	92.3
출산 수당	72.4	83.7	86.3	88.1	92.2
평균	78.6	84.7	86.8	87.7	89.0

자료: Rossi and Robertson, 2011을 재구성

89.0%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

BFC 근로 조건에 대한 27개의 세부 항목 준수율을 살펴보면, 1차 방문 시 근로 조건에 대한 항목별 준수율의 범위는 54.4~99.6%로 큰 편차를 보였으나, 5차 방문 결과 준수율 범위가 75.3~100.0%로 근로조건에 대한 항목별 준수율의 편차가 낮아져, 전반적으로 항목별 준수율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차 방문 시, 항목별 근로 조건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임금에 대한 정보(78.8%), 초과 근무에 대한 문제(76.2%), 아동노동(75%), 보건(77.8%) 작업장 환경과 운영에 대한 문제(80.4%) 등이었고, 노동분쟁(96.7%), 파업(98.7%), 노동조합 설립(99.5%), 강제노동(100%) 등에 대한 준수율은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ILO 근로 조건에 대한 준수도 개선의 경우, 근로자 대표, 출산 수당, 휴가 및 휴직, 정규 노동시간, 사고 및 질병 보상, 내부 규율 등에 대한 업체의 준수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 관련 사무원과 근로자 대표 항목의 준수율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BFC가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보다 나은 소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이 개선되면서 임금 정보 및 지불, 초과 근무, 안전법과 보건법, 휴무 등에 대한 준수도의 개선이 수반되었다.

결론적으로 BFC 프로젝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공장의 노동법규 준수 여부와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수출 증가, 근로 조건 개선,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ILO에 의한 모니터링은 바이어들의 자체 모니터링보다 정확도가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어 높은 근로 조건의 준수율은 바이어 구매 발주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 결과, 외자 기업들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여 수출 증가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섬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캄보디아 의류 산업의 고용 인원

이 약 8만 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약 3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이승철·오병두 2013). 둘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ILO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전에는 거의 전무하였던 노동조합이 2004년에 약 500개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이 등록되었으며, 2007년에 모니터링을 받은 공장 중 79% 공장에 최소 1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의류 부문 인력의 40~50%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Nuon and Serrano 2010). 셋째, ILO의 방문이 거듭되면서 공장들이 ILO 권고 사항에 따라 임금(최저임금법, 연장근무수당 지급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법을 준수하게 되었으며,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져 임금 정보 및 지불, 초과 근무, 안전법과 보건법, 휴무 등에 대한 준수도의 개선이 수반되었다.

## 2)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는 BFC와 더불어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노사관계 관련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법과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캄보디아 노동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 구축, 단체교섭의 역할과 기능, 파업 권리 보호 등과 같은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시작되었다(Adler, Brown, Meng and Noord 2004). 캄보디아에서 노동분쟁은 주로 법원에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하지만, 이를 적절히 이용할 법적인 구제 수단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법조인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며, 법원의 부정부패가 심해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폐해가 많다. 다시 말해,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신뢰 있는 법집행 기관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이승철·오병두 2013). 이와 같은 노동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캄보디아 노동부는 ILO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프라카스’(prakas)라고 하는 규제를 제정하였다. 프라카스는 법령에 정한 권한 내에서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법이며, 이 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 AC)에 관한 규제이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2002년에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부, 노동조합, 고용자협의회 3자 체제로 구성되었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위탁 기관이지만, 노동 중재위원회의 결정 또는 판결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다<sup>12)</sup>(Noord, Hwang and Bugeja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중재위원회는 설립 10년이 경과한 2012년까지 1,200여건의 중재 요청을 접수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였다(이승철·오병두 2013). 2012년 현재 노동 중재위원회에 등록된 노동분쟁 중 32.6%가 중재위원회 판결 이전에 양측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중재위원회에 등록된 노동분쟁 중 38%가 중재위원회의 판결로 노동분쟁이 해결되었으며, 6%는 판결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고, 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15.6%에 불과하다(그림 4). 이와 같이 낮은 미이행률은 노동 중재위원회가 캄보디아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까지 노동 중재위원회에 노동분쟁을 접수한 1,200여 개의 업체 중 2008년 이후에 접수한 16개 업체(외국인 투자기업 9개, 캄보디아 로컬기업 7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분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5). 조사된 16개 업체가 노동 중재위원회에 등록한 노사분규 건수는 51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 관련 노사 분규가 15건(2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각종 수당 중에서 주택 및 교통 수당 요구가 5건으로 가장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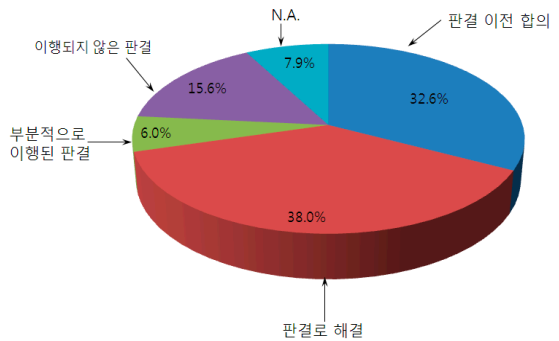


그림 4. 캄보디아 노동중재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성공률 현황(2003~2011년)

출처: Cambodia Arbitration Council(www.arbitrationcouncil.org/cn/#)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근 수당 인상 및 유지(질병, 정기휴가 중)에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부당 해임과 이로 인한 체불 임금 지불에 대한 요구에 따른 노사분규가 6건(11.8%), 유급 휴가 보장이 5건, 인센티브 요구가 3건으로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신규 공장의 급증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추가 지급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월 최저 임금 및 추가 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다(표 5). 캄보디아 노동위원회는 2010년 10월 1일부로 일반 노동자의 월 최저 임금을 56달러에서 61달러로 책정하였으며, 2012년 9월 1일부로 월 최저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각종 수당이 신설되고 변경되어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61달러이지만, 필수 수당(건강보조금, 만근 수당, 근속 수당, 교통 및 주택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78달러에서 88달러로 명목상 미화 1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시간외 수당(월 48시간)으로 25달러/월(식대 포함), 숙련공 인센티브 미화 5달러를 포함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은 118달러이다”(재 캄보디아 봉제협회장 오명석 사장과의 인터뷰, 2012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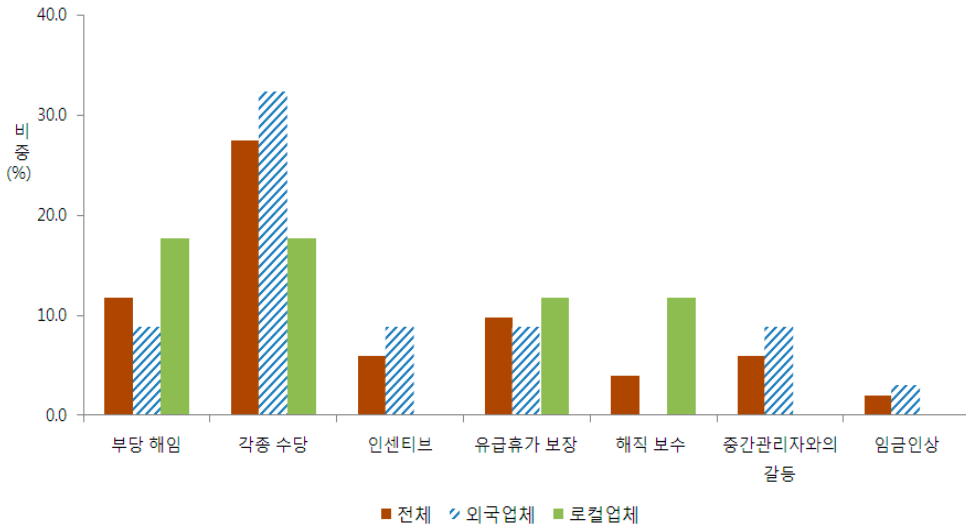


그림 5. 캄보디아 중재위원회에 등록된 노사 분류 원인

출처: Cambodia Arbitration Council(www.arbitrationcouncil.org/en/#)

주: 중재위원회 판결 사례(2008~2012년) 중 16개 업체를 선정하여 유형별 노동분쟁 원인을 분석하였음.

표 5. 캄보디아 임금 체계 변화

구분		2008.10~2010.12	2011.1~2012.8	2012.9~	비고
기본급		\$56	\$61	\$61	2013년 12.31까지 유효
수당	건강보조금	N.A.	\$5	\$5	
	만근수당	N.A.	\$7	만근수당+\$3=\$10	
	근속수당	N.A.	\$21~11	\$21~11	*근무 1년 경과 시 \$2~(평균 \$5)
	O/T 식대	N.A.	2,000리엘		
				교통 및 주택 수장 \$7	신설됨

출처: 재 캄보디아 한인 섬유 협회, 2012

주: 상기 기본급 및 수당은 캄보디아 정부가 정하는 노동법 최저 비용임.

## 5. 결론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기존 저임금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ILO와 연계하여 제정한 새로운 하위법인 프라카스 기반의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와 BFC와 같은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기업이 글로벌 기구와 연계된 현지 정부의 법, 정책 등에 제도적 착근하면서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리(new Asian economic geographies)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 투자 기업의 캄보디아 진입 전략 구축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네 개의 시기—도입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로 다소 쇠퇴기를 경험하였지만, 최근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과거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형 중심에서 기계장비, 금속,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노동 직업 훈련, 자본 및 기술 집약형 투자 인센티브 증가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의 기술이전 정책을 활성화하여 인적 및 물질 하부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섬유 및 의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단순 인적 비용 기반의 입지우위(labor cost based locational advantages)에서 향후 고도화될 수 있는 부문의 기술 비용 기반의 입지우위(technology cost based locational advantages)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개발협의회를 설립하여 전략적 국가개발계획에 근거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최대한 활성화 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경제발전 전략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생적 발전전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지원이 QIP와 SEZ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투자 진출 기업은 정부의 공급 조건과 기업의 주요 조건이 조율할 수 있는 접점을 도출해야 제도적 우위(institutional advantages)를 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1년 이후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과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역할을 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 의존적인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도적 착근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BFC의 세부 모니터링 항목 준수에 대한 사전 준비와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사례 및 해결 절차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은 생산성 증대로 연동되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글로벌 경제지리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

## 주

- 1)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첫째, 외국인 투자보장 원칙으로 외국인의 100% 소유 지분 인정,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동일하게 취급, 외국인인 70년간 토지임대 가능, 외국인 소유 자산의 국유화 불가, 투자자의 가격 임의 조정 불가, 국내 인력 수급 불가시 외국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둘째, 외환 해외송금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대금지급과 국제 금융 조달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이윤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자본금 반출 가능하다.
- 2)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프로젝트

- 중단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 3) 2008년 중국의 통민(Tong Min) 그룹이 추진한 Kampot 지역의 미화 38억 달러 규모의 해안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중국이 캄보디아 1위 투자국이 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 4) 2008년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외국인과의 외국계 법인이 현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현지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외교통상부 2008, 이행규 외 2010).
  - 5)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QIP)는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투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감면, 설비자재 수입시 관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 6) 자본 투자 5,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 광물 및 천연자원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장기 개발 전략과 관계있는 프로젝트 등은 국무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투자위원회 설치하고, 지방투자위원회는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의 QIP에 대한 업무를 취급한다.
  - 7) 예를 들어, 제2전략인 사회간접자본 개발 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프놈펜 국제공항과 시엠립 국제공항의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으로 건설한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CDC 2008; 외교통상부 2008).
  - 8) 투자법 제4장에 따라 QIP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자보장이 주어진다. 1)외국 투자자는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2) 정부는 투자자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제9조). 3)정부는 QIP 투자 프로젝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수료에 대해 가격 통제를 하지 아니한다(제10조). 4) 투자자는 캄보디아 법률, 중앙은행이 고시한 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획득한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1조).
  - 9) 2012년 7월 현재 프놈펜 공항 인근의 프놈펜 SEZs, 태국 국경 인근 포이피에트의 츠하이츠아이오네양 SEZs, 베트남 국경 도시의 맨하탄 SEZs이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어 분양 중이다(이승철 · 오병두 2013).
  - 10) 모니터링 프로젝트 총 자금은 3년 간 미화 140만 달러로 미국이 백만 달러, 캄보디아 정부가 20만 달러, 캄보디아 의류제조업협회(GMAC)가 20만 달러를 각각 출자하였다(이승철 · 오병두 2013).
  - 11) ILO 감시팀이 개별 공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관찰, 회사 문서 리뷰, 관리자, 노동조합 지도자,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노동기준과 국가 노동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 12) 집단 분쟁의 조정 기간 중 타결된 합의 사항은 조정 협정의 구속력이 있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작업장 또는 노동 감독관의 사무실에 게시해야 함(법 제307조, 제315조)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법적 실효성, 법원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참고문헌

- 김미성 · 이승철, 2009, 제도적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대 중국 한국 섬유 · 의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4), 국토지리학회, 663-67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9, Post-Chinaa 투자진출 유망국 투자여건: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2, 캄보디아 투자 실무 가이드.
- 성장환 · 장인석, 2010,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한 캄보디아 SEZs 개선방안, 아시아 연구, 177-203.
- 재 캄보디아 한인 섬유 협회, 2012, 재 캄보디아 한인 섬유협회 현황, 내부 자료.
- 외교통상부, 2008,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진출 가이드.
- 이승철, 2007, 친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대 베트남 한국 섬유 · 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한국경제지리학회, 93-115.
- 이승철 · 김미성, 2010,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네트워크와 착근성: 대 중국 한국 섬유 · 의류 투자 중소기업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4(4), 국토지리학회, 623-634.
- 이승철 · 오병두, 2013, 캄보디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성공전략, 노사발전재단.
- 이행규 · 유정훈 · 반기일, 2010,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 법제저.
- 지현철 · 이승철, 2007, 생산자본의 국제화 전략 및 입지 결정요인: 한국 대 베트남 섬유 · 의류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지리학회지, 41(4), 국토지리학회,

- 469-483.
- 한국수출입은행, 2009, 캄보디아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정보시스템 (www.koreaexim.go.kr).
- Adler, D., 2007, Informalizing the formal: labour relations in Cambodia, 1(3), *Justice for the Poor*.
- Adler, D., Brown, S., Meng, L. and Noord, H., 2004, *The arbitration council and the process for labour dispute resolution in Cambodia*, 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er.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2003,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August 05, 1994) and Law on the amend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March 24, 2003)*.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2008, *Cambodia Investment Guide book*.
- Cuyvers, L., Plasmans, J., Soeng, R. and Bulcke, D., 2008,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mbodia: Country-specific factor differentials*, Research paper 2008-003, University of Antwerp (<http://www.ua.ac.be/tew>).
- Cuyvers, L., Soeng, R. and Bulcke, D., 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case of Cambodia's textile, garment, furni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industries*, CAS Discussion paper No. 49, Center for ASEAN Studies.
- Falkus, M. and Frost, S., 2002, *Labour relations and regulation in Cambodia: Theory and practice*, Working paper series No. 38,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Hess, M., 2013,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variegated capitalism: (Self-)regulating labour in Cambodian garment factories*, Better Work Discussion Paper Series: No.9, Better Work.
- Hossain, M., 2010, *Report on Cambodia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The Business Advocacy Fund.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3, *Cambodia: An investment guide to Cambodia*.
- ILO, 2010, *Labour and social trends in Cambodia*, ILO.
- Merk, J., 2012, *10 years of the Better Factories Cambodia Project: A critical evaluation*, Community Legal Education & Clean Clothes Campaign.
- Natsuda, K., Goto, K. and Thoburn, J., 2009, *Challenges to the Cambodian garment industry in the global garment value chain*, RCAPS Working Paper No. 09-3, Ritsumeikan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RCAPS),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URL: <http://www.apu.ac.jp/rcaps/>).
- Noord, H., Hwang, H. and Bugeja, K., 2011, *Cambodia's Arbitration Council: Institution-building in a developing country*, Working paper No. 24, IL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 Nuon, V. and Serrano, M., 2010, *Building union in Cambodia: History, challenges, strategies*, Friedrich-ebert-Stiftung.
- Rossi, A. and Robertson, R., 2011, *Better Factory Cambodia: An instrument for improving industrial relations in a transnational context*, Working paper 256,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Savuth, C., 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dustrial linkages: Evidence from Cambodi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agoya.
- Warren, C. and Robertson, R., 2011, *Globalizati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 case study of Cambodian garment factories*, Working paper 257,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2014년 9월 21일 최종 접속.
- 교신: 이승철,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서울캠퍼스, 전화:02-2260-3402, 팩스: 02-2285-3409, 이메일: leesc@dongguk.edu
- Correspondence: Sung-Che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campus, Dongguk University, Pildong 3, Jung-gu, Seoul, Korea, Tel: 82-2-2260-3402, Fax: 82-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 최초투고일 2014년 10월 19일  
수정일 2014년 11월 15일  
최종접수일 2014년 11월 18일